



A Star Through Time(시간을 관통하는 별):

제니스, 몰입형 전시회 <LE MONDE ETOILÉ(르 몽드 에뚜왈레)>를 싱가포르에 선보이다

2019 년은 제니스에게 있어 새로운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제니스의 아이콘인 티 Primo(엘 프리메로) 크로노그래프 50 주년 기념행사가 1 년 내내 진행될 뿐 아니라, 제니스 공방에서 몰입형 체험을 통해 제니스와 스위스 시계공학의 역사를 소개하는 <LE MONDE ETOILÉ(르 몽드 에뚜왈레)>의 1 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이제, <A Star Through Time(시간을 관통하는 별)>이라는 이름으로 사상 최초로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팝업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은 전례 없이 인터랙티브한 방식으로 제니스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스위스 시계공학의 본산지를 방문하여 최고의 시계 공방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LE MONDE ETOILÉ(르 몽드 에뚜왈레)>의 시노그래퍼들은 2018 년 뉴사텔 관광공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제공하는 전시회를 고안한 바 있다. 방문객들이 본격 시계공방 내부의 작업들을 살펴볼 수 있는 360° 체험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곳에 전시된, 아카이브에서 가져온 진귀한 시계들을 통해 방문객들은 티 Primo(엘 프리메로) 칼리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발견할 수 있다. 첨단 시청각 프리젠테이션 기술을 사용한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는 시간을 관통하는 잊을 수 없는 감각 여행을 창조한다.

8 월 28 일에서 9 월 1 일까지 격조 높은 오차드로드에 위치한 니안시티 시빅 플라자에서 개최되는 <A Star Through Time(시간을 관통하는 별)>은 싱가포르를 기점으로 전세계 순회 전시를 시작한다. 2020 년에도 여러 곳에서 전시가 계획되어 있다. 제니스의 줄리앵 토나르 제니스 최고경영자는 “싱가포르는 언제나 시계공학에 대한 제니스의 전형적인 접근방식을 포용해 왔습니다. 싱가포르 부티크 개장에 앞서 <LE MONDE ETOILÉ(르 몽드 에뚜왈레)>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는 제니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너무도 창조적인 방식으로 발견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는 말로 8 월 29 일의 전시회 개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장에는 기자들과 인플루언서들뿐 아니라 안 엔젤 뉴사텔 관광공사 소장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LE MONDE ETOILÉ(르 몽드 에뚜왈레)>는 또한 제니스의 영웅에 대한 헌사이기도 하다. 제니스 공방의 다락에 티 Primo(엘 프리메로) 제작에 필요한 공구를 숨긴 시계 장인 샤를 베르모의 반항적이고도 용감한 행위가 이 탁월한 칼리버가 명맥을 유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준다. 방문객들은 3D 로 재현한 비밀의 다락방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고, 3D 디스플레이와 소품을 사용하여 인터랙티브 포토를 만들어볼 수 있다.

<A Star Through Time(시간을 관통하는 별)>에서 방문객들은 시계 클리닉과 시계제조 공방 체험에서 패널 토크와 특별 게스트와 함께 하는 해피 아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벤트와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픈 컨셉 워치 바에서는 제니스 컬렉션의 다양한 시계들을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다.

<A Star Through Time(시간을 관통하는 별)>의 관람객들은 이렇게 광범위한 체험 활동, 몰입형 전시회 및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를 통해, 전무후무한 제니스의 역사에 깊이 들어가 별이 반짝이는 밝은 미래를 잠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제니스: 스위스 시계공학의 미래



혁신의 별을 따라 전진하는 제니스는 모든 시계에 독보적인 자체 개발 및 제작 무브먼트를 장착한다. 하나의 덩어리를 깎아서 만든 오실레이터가 탁월한 정확도를 자랑하는 DEFY Inventor(데피 인벤터), 100분의 1 초 단위 측정 고주파수 크로노그래프를 장착한 DEFY El Primero 21(데피 엘 프리메로 21) 등이 좋은 예이다. 1865년 창사 이래 제니스는 항공의 초창기에 선보인 “파일럿 워치”와 사상 최초로 양산된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 프리메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정확도와 혁신의 개념을 끊임없이 경신해 왔다. 언제나 한 발 앞서 나가는 제니스는 성능의 새로운 기준과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으로 독보적인 전설의 새 장을 쓰고 있다. 제니스는 시간 자체에 도전장을 내고 별을 향해 나아가려 하는 대담한 이들과 함께, 언제나 같은 자리를 지키며 스위스 시계공학의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